

‘케데헌’ OST ‘골든’ 빌보드 ‘핫100’ 1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미·영 양대 차트 모두 석권

K팝 최초의 기록 세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다.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영국 양대 차트 모두 석권이라는 K팝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관련기사 17면>

영화의 세계적 흥행이 음원 성적으로 직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팝이 미국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BTS) 이후 처음이다.

빌보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16일자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미국 팝스타 알렉스 워런의를 제치고 ‘핫100’ 정상을 차지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핫100’은 스트리밍,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를 종합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을 집계하는 빌보드의 대표 차트다.

K팝 곡이 ‘핫100’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다. BTS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K팝 최초 1위를 기록한 뒤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등 총 6곡을 정상에 올렸다. 이후 BTS 멤버인 지민의 ‘Like Crazy(라이크 크레이지)’, 정국의 ‘Seven(세븐)’이 뒤를 이었다.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곡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골든’이 처음이다.

‘골든’은 지난달 초 81위로 첫 진입한 뒤 영화 흥행에 힘입어 23위, 6위, 4위, 2위를 거쳐 7주 만에 정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K팝 곡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싸이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다.

‘골든’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의 걸그룹 ‘헌터스’가 부른 곡이다.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참여했다. 특히 곡의 작곡가이기도 한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K팝 걸그룹이 알고 보면 ‘헌터’라는 비밀을 지닌 채 악귀로부터 팬들을 지키는 이야기를 그린다. 한국적 정서가 묻어나는 무대와 도시 풍경,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에 더해 트와이스와 프로듀서 테디 등 실제 K팝 제작진이 참여한 OST로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곡 ‘골든’은 밝고 경쾌한 멜로디와 시원하게 뻗는 고음으로 중독성을 자랑하는 곡이다. S.E.S 바다, 에일리, 아이브 안유진, 소향, 권진아 등 K팝 가수들이 ‘골든’을 따라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화제를 더했고, 해외 클럽과 페스티벌 현장에서 관객들이 떼창을 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빌보드 ‘핫100’에는 ‘골든’ 외에도 영화 속 악역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Your Idol)’, ‘소다팝(Soda Pop)’ 등 총 8곡의 OST가 이름을 올렸다.

대중음악평론가 임희운은 “영화 흥행 효과도 있었지만 곡 자체의 힘이 강력하다”며 “올해 여름에는 사브리나 카펜터나 빌리 아일리시처럼 강력한 서머송이 부재했다는 점도 ‘골든’의 급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 장면.

“나와 관련 없는 기업들 수사 받아 가슴 아파”

‘김건희 집사’ 김예성 입국

특검, 공항에서 체포 조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씨는 입국 전날 국내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무작정 수사를 받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해외 도피’ 의혹까지 불거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급파해 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체포한 뒤 특검 사무실로 이송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김씨가 공교롭게도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 한국에 돌아오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 택일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일가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가 특검팀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그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면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씨는 입국 전날인 11일(현지 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부탁으로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것은 내 인상에 아주 치명적인 과오였다”면서 “향후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가서 아는 것이 있다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존재가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어 2021년 4월에 IMS모빌리티에서 퇴사했다”면서 “이후 카카오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투자하던 2023년에도 조건은 IMS모빌리티가 저와의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최고 투자책임자와 카카오모빌리티 최고 재무책임자와는 알고 지냈지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면서 “경남스틸 최고 대표도 조 대표와 함께 아는 사이일뿐 나머지 투자 기업 관계자들과 친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尹계엄 위자료 가집행 ‘조건부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

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가집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액수여서 당사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려있어 그 전에 집행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